

주사랑교회 소식

1. 환영 및 여는 찬양

주사랑교회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 안에서 영혼이 잘될 같이 범사에 잘되고 영혼육의 강건한 복도 많이 받으세요. 매 주일 낮 10시 45분부터 찬양과 경배로 예배를 시작합니다.

2. 학원선교 파송의 주일 (특송 : 교회학교 일동)

오늘 주일 예배(8.18)는 학원선교 파송의 주일로 드립니다.

3. 어린이 예배 장소 임시 변경 (어린이-본당 / 청장년부-교육관)

교육관 50인치 TV가 고장이 났는데, 구매하지 10년이 넘었고 수리비도 많이 들어, 다시 구매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8월 말까지는 본당에서 예배를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예배 (주일 오후 1시 : 본 당)

청장년예배 (주일 오후 1시 30분 : 교육관)

4. 아하브 코업(홈스쿨) 개강 예배

일시 : 2024년 8월 27일(화) 오전 11시

장소 : 주사랑교회 본당 및 교육관

주관 : 아하브 코업 (박제연 집사)

5. 코로나19 주의

요즘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다시 기승을 부린다고 합니다. 과거처럼 국가적 차일에서의 팬데믹 선언은 하지는 않고 있지만, 치료제가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인 듯합니다. 성도님들 가운데 발열을 동반하는 감기 증세가 있을 시에는 담임목사에게 알려주시고, 교회에 비치된 손소독제, 마스크, 진단키트를 활용해주시고, 아무쪼록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하고 은혜로운 신앙생활의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6. 2024년 8월의 생일을 축하드립니다. (음력 6.27 ~ 7.28)

8. 1(월) 박사아 8. 7(수) 정애자(-7.4) 8. 7(수) 신미경(-7.4) 8. 9(금) 이광근
8.11(일) 김치린 8.12(월) 고은지 8.16(금) 김현경 8.16(금) 김동찬 (-7.13)
8.18(일) 장사라 8.19(월) 김도현

행사계획

날짜	행사내용
08/15	교역자 부부 수련회 (교동도)
08/18	학원선교 파송의 주일
08/25	모로코 선교 헌신예배
08/27	함베드로-안사탕 선교사 출국 이하브 코업 개강 예배
09/01	찾날맞이 월삭예배 (성찬예식)
02-07	담임목사 가정 휴가
09/08	평신도주일
09-14	가을맞이 특별 새벽 기도회
09/15	추석 명절맞이 감사예배 (16-18)
09/22	순교자 기념주일
09/29	선교 헌신예배
10/01	찾날맞이 월삭예배 (성찬예식)
10/06	태산자 작정 주일(1)

주일 사랑 운영

요일	운행안내
주일	교회출발(9:45) ▶ 탐동(10:00) ▶ 화서동(10:10) ▶ 세류동(10:20) ▶ 교회(10:30)
귀가	교회출발(13:30) ▶ 탐동(13:40) ▶ 화서동(13:50) ▶ 동탄(14:20) ▶ 화성군 송산면 용포리(15:00)
평일	담임목사 연락(010-4724-3562)

예배안내

구분	분시	간
주일오전예배 1부	오전	11:00
주일오후예배 2부	낮	1:00
주일어린이예배	낮	1:00
주일학생예배	낮	1:00
주일청장년예배	낮	1:00
수요저녁기도회	저녁	7:30
금요성령기도회	저녁	7:30
새벽기도회(월~토)	새벽	5:30
화요중보기도회	낮	2:30
목요구역예배	낮	2:00
Who made the world?	(상담 후 진행)	
Thinkwise(마인드맵)	(상담 후 진행)	
쉐마학당	(상담 후 진행)	

찾아오시는 길 / 매교역 2번 출구방향 50m



주일대표기도

08/18 이광근 안집사
08/25 임명자 집사
09/01 임명숙 집사
09/08 김혜숙 권사
09/15 정애자 권사
09/22 박제연 집사
09/29 이광근 안집사



주사랑 7권 33호 | 2024년 8월 18일
창립 2017.11.25 | 성령강림 후 열세 번째 주일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주사랑교회
Jusarang Korea Evangelical Holiness Church



주사랑교회 사명선언

- 오직 예수만을 구주로 고백하는 신앙공동체로써
-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 성령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와 가정을 세워가고
- 실력과 영성을 겸비한 다음 세대를 리더로 세우며
- 불신자들에게 생명의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며
- 민족복음화와 통일선교에 이바지하며
- 열방과 세계에 복음으로 선교하는 교회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Welcome to Jesus Love Church

주사랑교회를 찾아주신 형제, 자매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교회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담임목사의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일 오전 예배

오전 11시 00분 (학원선교 파송의 주일) 인도: 집례자

- ※ 목도 전도서 12:13-14 다 같이
- ※ 찬송가 찬 9장 다 같이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 ※ 사도신경 다 같이
- ※ 주기도문 찬 635장 다 같이
- 성서교독 No.79 요한복음 15장 다 같이
- 찬송가 찬 254장 다 같이
(내 주의 보혈은)
- 대표기도 이광근 안장사
남전도회장/재정부장
- 성경봉독 열왕기상 19:9-18 (구 550) 이광근 안장사
- 특별찬송 내 맘의 주여 사랑 되소서 (찬 484) 교회학교일동
- 광고 한승훈 목사
- 말씀인도 진정한 행복을 찾아서 한승훈 목사
- 봉헌찬송 찬 516장 다 같이
(헌금위원: 정환희 학생)
- ※ 축도 담임 목사
(※ 표시는 경건한 마음으로 일어섭니다)

양기로운 예물 (언금은 들어오시면서 미리 언금함에 넣어주세요)

- 십일조 : 이광근박제연 한성결 한은총 한희락
- 주정헌금 : 김혜숙 문재효 박제연 이광근 오동영 임명숙 현수현진 임명순 임명자 정애자 한승훈
- 교회학교 : 이재우 이재아 이재희 한은총 한성결 한태민 한희락
- 뮤지컬 회비 : 이재우 이재희 임명순 정혜리 한은총 한성결 한태민 한희락
- 감사헌금 : 김혜숙 이광근박제연(차녀) 전복순 임명순 한승훈 / 김주형
- 구역헌금 : 김혜숙 박제연 임명순
- 선교헌금 : 이광근박제연
- 구제헌금 : 이광근박제연
- 건축헌금 : 이광근박제연 / 조남간 박윤미
- 후원헌금 : 오복상방예경 농협 (주사랑교회) 351-1002-2982-63

국내선교(선한총성교회)



국내선교(오주교후흥스쿨)



해외선교(모로코)



해외선교(타지키스탄)



북한선교(북한선교위원회)



통일선교 비전기도회

오후 1:00 **경배와 찬양** 야비찬양단
대표기도 말은 이
성경봉독 **예레미야 51:1-10 (구 1136)**
말씀제목 **의롭지 못한 바벨론의 최후**
말씀인도 한승훈 목사

수요 저녁 기도회

오후 7:30 **경배와 찬양** 야비찬양단
성경봉독 **요한복음 6:51-58 (신 154)**
말씀제목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리리라**

목요 구역 기도회

오후 2:00 **가족예배** 가정별 찬양
성경봉독 **열왕기상 11:1-13 (구 531)**
대표기도 아버지(父)
말씀제목 **솔로몬이 무친 이유?**

금요 저녁 기도회

오후 7:30 **경배와 찬양** 야비찬양단
성경봉독 **에베소서 5:15-20 (신 315)**
말씀제목 **예수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께 감사**

새벽 기도회

새벽 5:30 **매일성경 새벽본문**
18일(일) 렘 51:1-10 의롭지 못한 바벨론의 최후
19일(월) 렘 51:11-19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
20일(화) 렘 51:20-32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21일(수) 렘 51:33-44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땅
22일(목) 렘 51:45-53 영원한 피난처이신 하나님
23일(금) 렘 51:54-64 교만한 자들의 확정된 심판
24일(토) 렘 52:1-11 오만하고 지도자의 결말
25일(일) 렘 52:12-34 빈집 빈땅 빈마음
(단, 주일은 개인별 자율 묵상)

⑧ 율법책의 낭독하는 내용을 들은 요시아 왕의 반응은?(왕하 22:11,13)

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이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⑨ 요시아의 반응과 행동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왕하 22:18~20)

너희를 보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들은 말들에 대하여는 내가 이 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 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하여 옷을 찢고 ()하였으므로 ()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 곳에 내리는 () 하였느니라 하니 사자들이 왕에게 보고하니라

⑩ 진노 중이라도 말씀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위하여 요시아 왕이 단행한 종교 개혁은?(왕하 23:1~3)

왕이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로 (), 이에 왕이 여호와와 ()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 왕이 여호와와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을 세우되 ()을 다하고 ()을 다하여 여호와께 ()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 하니라

⑪ 요시아 왕이 예루살렘 성전정화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모든 지경을 두루다니며 백성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리기 위해 단행한 종교개혁은?(왕하 23:19~20)

전에 이스라엘 여러 왕이 사마리아 각 성읍에 지어서 여호와를 격노하게 한 ()을 요시아가 다 제거하되 벤엘에서 행한 모든 일대로 행하고 또 거기 있는 ()의 제사장들을 다 제단 위에서 죽이고 사람의 해골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⑫ 요시아 왕의 종교 개혁 중 사사 시대 때에 사라진 절기로 출애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과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건은 기념하는 절기는?(왕하 23:21~23)

왕이 뭇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을 지키라 하매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요시아 왕 열여덟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을 지켰더라

(답안을 작성한 주보의 앞면에 이름을 기록하시고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봉환기간에 축복기도와 1년 치를 모아 제본해 드립니다)

- ① 히스기야 왕의 죽음을 선고한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듣고 히스기야는 어떻게 반응했나요?
(왕하 20:2~3)
히스기야가 ()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 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하더라
- ② 전심으로 회개하고, 통곡하며, 기도하는 히스기야 왕에게 하나님의 응답은?(왕하 20:5-6)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와 말씀이 내가 네 ()를 들었고 네 ()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 내가 삼 일 만에 여호와와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네 날에 ()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앗수르 왕의 손에서 () 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하므로 이 성을 ()하리라 하셨다 하라
- ③ 히스기야 왕이 이사야에게 묻은 구원의 징표는 무엇인가?(왕하 20:10~11)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를 나아가지는 쉬우니 그리할 것이 아니라 ()이니이다 하니라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아하스의 해시계 위에 나아갔던 () 하셨더라
- ④ 히스기야가 병고침을 받고 은혜 속에 낳은 아들이었지만 12세에 왕위에 올라 55년 동안 폭정과 끊임없이 우상숭배를 일삼던 왕은? (왕하 21:11~12)
유다 왕 ()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 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들의 ()으로 유다를 ()하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에 ()을 내리리니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 ⑤ 므낫세의 아들로 20세에 왕 위에 올랐지만 하나님을 버리고 그의 아버지가 섬기던 우상을 섬기다가 2년 만에 신복들에게 죽임을 당해 패위된 왕은? (왕하 21:19)
()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이십이 세라 예루살렘에서 이 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므슬레멧이요 옷바 하루스의 딸이더라
- ⑥ 8세에 왕 위에 올라 31년간 통치한 왕으로 히스기야의 하나님을 성실하게 섬기고 종교개혁을 단행하여 허물어진 유다 왕국을 재건하려고 힘썼던 왕은?(왕하 22:2)
()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 ⑦ 요시아의 명령으로 성전을 수리하다가 모세의 율법책을 발견한 인물은?(왕하 22:8)
대제사장 ()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와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향기로운 신앙 : 행복은 지금 여기에, 바로 당신 곁에 있습니다.

벨기에의 시인이자 작가인 모리스 마테를링크가 쓴 <파랑새>라는 유명한 동화가 있습니다. '파랑새'는 가난한 나무꾼의 아이인 틸틸과 미틸 남매가 파랑새를 찾아 온 세상을 돌아다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전날 밤이었습니다. 틸틸과 미틸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앞집에서 들려오는 노랫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때 스르르 문이 열리더니, 늙고 등이 굽은 할머니가 들어 왔습니다.

“애들아 여기에 파랑새는 없니?”, “새는 있지만 파랑새는 아니에요”

할머니는 천장에 매달린 새장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오누이는 할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왜 파랑새를 찾으세요?”, “병든 내 딸이 파랑새를 갖고 싶어 해.”

오누이는 파랑새를 찾아주기로 했습니다. 틸틸과 미틸은 파랑새를 찾으러 길을 떠났습니다.

처음 도착한 곳은 <추억의 나라>이었습니다. 그곳엔 돌아가신 할아버지와 할머니 집이었는데, 자기들을 사랑해주셨던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보니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게다가 새장 속에서 노래하는 파랑새를 보았습니다. 오누이는 새를 가지고 추억의 나라를 떠났지만, 그 순간 파랑새는 검게 변하고 말았습니다.

틸틸과 미틸은 다시 <어둠의 궁궐>로 갔습니다. 오누이는 그곳에서 파랑새를 여러 마리를 잡았습니다. 그러나 그곳을 빠져나오자마자 모두 죽어 버렸습니다. 죽은 새들을 자세히 보니 진짜 파랑새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틸틸과 미틸은 다음에는 <행복의 나라>에 도착했습니다. 어디에나 맛있는 음식과 즐거운 웃음소리가 가득 했습니다. 하지만 파랑새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파랑새를 찾지 못한 오누이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찾아온 할머니에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파랑새를 찾지 못했어요”, “아니, 애들아 파랑새는 저기 있잖니?” 할머니께서는 틸틸이 기르던 산비둘기를 가리켰습니다.

“파랑새는 항상 너희 집에 있었어.”

틸틸과 미틸은 산비둘기를 할머니께 드렸습니다.
“고맙다. 우리 딸이 얼마나 좋아 할까?”

틸틸과 미틸은 파랑새를 찾아 이곳저곳을 찾아 다녔지만, 결국은 파랑새를 찾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찾고 찾아다녔던 그 파랑새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집에 있었습니다. 집에서 기르던 산비둘기가 파랑새였던 것입니다. 행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가까이 있습니다. 행복을 찾아 애쓰고 애썼지만 그렇게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 곁에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구역예배 • 가정예배 (구역예배가 어려운 성도님들은 **가정예배로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도신경	다	같	이
찬 송 가 찬 263장	다	같	이
대 표 기 도	어	머	니
성 경 봉 독 열왕기상 11:1~13 (구 531) 솔로몬이 무너지는 이유?	자	녀	들
말 씀 인 도	어	머	니(母)
합 심 기 도	다	같	이
헌 금 기 도 찬 265장	아	버	지(父)
주 기 도 문	다	같	이

■ 들어가는 말

오늘 본문은 솔로몬 인생의 마지막 부분으로 그동안 잠깐씩 보이던 솔로몬의 부정적인 모습을 분명하게 드러내며, 솔로몬의 실패와 죽음을 다루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세력을 강화하려고 많은 이방 여인들과 결혼했는데, 이 일로 솔로몬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적 문제점이 나타나게 됩니다.

고대 근동 전역에 걸쳐 정략결혼은 외교적 수단이었습니다. 고대 통치자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아내는 보통 정치적 동맹의 상징적 존재입니다. 어떤 통치자와 동맹을 맺거나 그의 보호 하에 들어가고 싶어 하는 성읍·도시·부족·국가들은 그들의 우두머리 가문의 딸을 왕이나 왕의 아들과 결혼시킴으로써, 상호호호조약 및 평화조약을 맺었습니다. 솔로몬이 수많은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한 것은 주변 나라들과 많은 동맹을 맺은 결과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들이 솔로몬 자신의 신앙과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을 무력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맙니다. 솔로몬의 여인들이 가지고 온 신상들은 결국 우상숭배의 온상이 되었고, 솔로몬과 이스라엘이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만드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진노 하셨고, 왕국을 떼어 다른 신하의 손에 넘기시겠다고 준엄하게 선언하셨습니다.

우리는 솔로몬의 결혼과 배교 그리고 하나님의 처벌에 대해 어떤 교훈을 얻어야 할까요?

첫째, 유혹 앞에서 무너지는 연약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솔로몬은 말씀을 어긴 채 술한 이방 여인들과 통혼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방여인들이 가지고 들어온 음란한 문화와 관습이 우상숭배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방인들과의 결혼을 엄격히 금했습니다. “네가 그들의 딸들을 네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네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출 34:16). 또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신 17:17). 솔로몬은 외교적 실리를 얻을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전파할 수 있다는 논리도 폄을 것입니다. 혼인정책을 통해 주변 나라들의 불만을 잠재우고 인위적으로 평화를 만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핑계에 불과할 뿐, 실상은 여인의 아름다움에 취하고, 자신의 정욕을 다스리지 못한 처사였습니다. 후궁과 첩의 수가

천을 헤아립니다. 후궁의 수만큼 하나님과의 관계에 천 가지의 실금을 만들어냅니다. 이러한 상태로는 견고한 신앙과 믿음을 지켜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망각한 솔로몬은 더 이상 지혜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이방 여인들에게 마음을 빼앗긴 솔로몬은 더 이상 부와 명예와 영광을 누릴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둘째, 가는 세월 앞에서 약해지는 신앙을 주의해야 합니다.

흐르는 세월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없고, 무너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솔로몬이 늙어가면서 솔로몬의 신앙도 시들어갑니다. 솔로몬은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히 여호와 앞에서 행하는 장부가 되라”(왕상 2:1~4)고 당부했던 다윗의 길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드는 지혜로운 젊은이는 이제 온데간데없고, 분별력과 절제력과 통제력을 잃은 채 이방 여인들에게 놀아나는 늙은 솔로몬이 예루살렘 온 도성을 우상의 소굴로 만들어버립니다. 결혼 초기에는 우상을 거절했지만, 쌓이는 세월 앞에서 우상에 대한 경계심이 무너졌고,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 안에 온갖 우상들을 채워갑니다. 진정한 믿음과 신앙은 세월을 견디는 신앙입니다. 하루 이틀 뜨거운 신앙에 그치지 말고, 시간의 테스트를 통과한 진득한 믿음의 주인공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날마다 말씀 앞에 나를 세우고, 자신을 쳐서 주님께 복종시키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셋째, 설마 앞에서 무너질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솔로몬이 무너지 이유가 또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긴 처사입니다.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방 여인과의 통혼을 금하셨습니다.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을 따르게 하리라”는 경고를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솔로몬은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무시하고 가볍게 여겼습니다. 설마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할 때, 언제라도 넘어질 수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말씀을 등한시 할 때, 나라도 무너질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의 나라를 빼앗아 신하에게 주겠다고 하십니다. 하지만 다윗의 신실함을 생각하여 이 일은 솔로몬의 때에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고, 한 지파만을 솔로몬의 아들에게 줄 것이라고 하십니다. 준엄한 심판 중에도 자비를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사모해야 합니다.

■ 결론

천하 만물 중에 강한 것이 사람인 듯하지만, 또 약한 것이 사람입니다. 온 나라와 세계를 정복할 만큼 강한 것처럼 보이기도, 작은 미생물이나 세균 하나로 고꾸라지는 것도 사람입니다. 골리앗처럼 무서운 장수를 쓰러뜨릴 만큼 강력하지만, 베세바를 바라보는 음욕하나에 너머지고 마는 것도 사람입니다. 굳은 결심으로 신앙을 품지만, 이런저런 사정을 만나면 신앙의 절개는 약해지고, 어느새 속물로 변해가는 것이 사람입니다. 위대한 솔로몬도 예외가 아니었다는 사실에 놀랍고 안타깝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자신의 지식과 판단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눈앞의 유익보다 말씀이 요구하는 고난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길이 가장 영광스럽고 유익한 길입니다. 말씀이 내 바의 등ियो, 내 길의 빛이 되십니다. 진정한 신앙은 달콤한 유혹과 세월 앞에서도 신실함과 성실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굳게 지킵니다.